

서지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도서의 저작유형 분석*

An Analysis on the Work Types of Korean Books Based Bibliographical Relationship

김 정 현(Jeong-Hye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서지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도서의 저작 유형 분석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저작의 유형구분 및 조사 |
| 2. 연구방법 | 2. 한국어 도서의 저작유형 |
| 3. 선행연구 | 3. 저작의 특성과 목록기술 |
| II. 서지적 관계의 개념과 유형 | IV. 결 론 |
| 1. 서지적 관계의 개념 | |
| 2. 서지적 관계의 유형 | |

초 록

오늘날 어떤 저작이 창안되어 출판되면 거기서 파생되어 생산되는 관련 저작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원작과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하고, 출판매체를 달리하여 새로운 형태로 제작되기도 한다. 내용을 각색하여 새로운 저작으로 출간하기도 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거나 축약하기도 한다. 원작에서 파생된 이들 저작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서지적 관계가 존재하며, 이용자들은 이들의 서지적 관계를 유추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저작을 찾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서지적 관계를 기반으로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어 도서의 저작유형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어 도서의 저작특성과 목록기술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장차 이들 자료를 조직하여 구조화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주제어: 서지적 관계, 저작유형, KORMARC 형식, 서지레코드기능요건

ABSTRACT

Today, if a work is created and published, new items concerned with it gets expended extremely. There ar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between the original work and new items as it is translations, revisions, reproductions, critiques etc. Bibliographic relationships refer to the connections and associations between two or more than two bibliographic items. Tillet's study with taxonomy, as well as other studies of th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is used as the foundation for analysis of the work types.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work types based upon th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of Korean publications. KORMARC records of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s used to draw a sample for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of the study are provided for future studies on the KORMARC format and organization of Korean collections.

Key Words: Bibliographical Relationship, Work Types, KORMARC Format, FRBR

* 이 논문은 2005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gim@chonnam.ac.kr)

• 접수일: 2007년 8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7년 8월 3일 • 최종심사일: 2007년 9월 21일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어떤 저작이 창안되어 출판되면 거기서 파생되어 생산되는 관련 저작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원작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하고, 내용을 전면 개정하거나 일부 수정하기도 하고 축약 또는 증보하기도 한다. 출판매체를 달리하여 새로운 형태로 대체하거나 영인, 복제하여 제작하기도 한다. 내용을 각색하거나 극화하여 새로운 저작으로 출간하기도 하고, 원전을 해설하거나 주석 또는 평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저작들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출판매체는 물론, 유통경로도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서를 중심으로 한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동일한 작품이라고 간주되는 것이 소설책으로 출판되어 서점에서 판매됨과 동시에 영화로 제작되어 영화관에서 상영되기도 하며, 그 중에서 비디오로 제작되어 판매점을 통해 유통되기도 한다. 소설책을 입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서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웹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작품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도 다양한 정보원이 되어 유통될 경우에는 소설책과 비디오와 같이 입수경로가 다양하다.

그러나 도서를 읽은 이용자가 그 내용을 영화로 보고 싶은 경우나, 비디오를 통해 문학작품을 알고 난 후 그 원작인 도서를 읽고 싶은 경우를 생각하면, 동일한 작품에서 유래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동시에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뿐만 아니라 화상자료, 비디오, 음악 CD, DVD 등 복수의 매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즉, 원작에서 파생된 이들 저작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서지적 관계(bibliographic relationship)가 존재하며, 이용자들은 이들의 서지적 관계를 유추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저작을 찾게 될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관련저작들을 목록상에 집중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간구해 왔다. 우리가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참조나 주기가 관련저작들의 서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늘날의 MARC 형식에서도 관련저작을 구조화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연관저록 필드를 설정함으로써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저작들을 서지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새로운 저작개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IFLA의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서지레코드의 기능요건) 모형 1)도 이러한 서지적 관계유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분석하여 목록기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목록기술의 대상이 되고 있는

1)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Munich: Saur, 1998).

실물장서를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지적 관계가 실제 장서에서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주제별로 서지적 관계의 특징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서지적 관계가 목록레코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목록조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FRBR 모형의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목록레코드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장서의 서지적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저작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양자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있지만 한국어도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서지적 관계유형에 기반한 저작유형이라고 한 것은 서지적 관계유형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저작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명명 하였다.

이 연구는 서지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국어 도서의 저작유형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어 도서의 저작특성과 목록기술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장차 이들 자료를 조직하여 구조화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한국어 도서에 있어 서지적 관계에 기반한 저작유형의 전반적인 실태와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이하 'KORMARC 형식'이라 약칭)의 레코드와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MARC 형식에 구조화되어 있는 연관저록필드를 비롯하여 Tillett, Bertha, Smiraglia 등이 제시하고 있는 서지적 관계유형, 그리고 FRBR 모형의 서지적 관계 등을 분석한 후, 이를 한국어 도서의 저작유형 분석을 위한 준거로 삼는다.

둘째, 한국어 도서의 조사범위는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장서로 한정하였다. 즉,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OPAC에서 DDC 주류마다 100건씩 모두 1,000건의 서지레코드를 표본으로 무작위 추출한 후, 이를 대상으로 서지레코드와 함께 서가상의 자료를 직접 조사하여 저작유형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전국적인 실태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어 도서의 저작유형과 KORMARC 형식의 레코드와 관련된 특성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저작의 유형별 특성과 KORMARC 형식의 레코드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한다.

3. 선행연구

여기서 저작유형이란 목록기술에 있어 서지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서지적 관계에 대해 비교적 초기 연구에 해당하는 Tillett의 연구에서는 1981년 Panizi의 목록규칙에서부터 1978년 영미목록규칙 제2판까지 24개의 목록규칙을 분석하여 대등관계, 파생관계, 기술관계, 전체-부분관계, 딸림자료관계, 전후관계, 특성공유관계 등 7개의 서지적 관계 범주를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Tillett은 후속연구로 1968년부터 1986년 사이에 미국의회도서관의 기계가독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MARC 레코드들 간에 존재하는 서지적 관계를 기술관계와 특성공유관계를 제외한 5개 서지적 관계에 대해 자료의 유형별로 조사하였다.²⁾ 이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지적 관계를 갖는 레코드의 비율이 75%로 나타났으며, 각 관계유형별로 전체-부분관계는 62.36%, 전후관계는 16.11%, 파생관계는 14.27%, 딸림자료관계는 3.91%, 대등관계는 3.35%로 나타났다.

Smiraglia는 저작들간의 파생관계를 동시적 파생물, 연속적 파생물, 번역물, 증보, 축약, 개작, 공연의 7가지로 구분하고 조지타운대학도서관의 목록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파생관계가 49.9%로 나타나 Tillett의 연구에서 확인된 비율의 두 배에 해당하였다.³⁾

Vellucci는 Tillett의 관계유형을 기반으로 Estman 음악학교의 음악도서관목록을 대상으로 음악자료에 대한 서지적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유형별로 전체-부분관계 86%, 파생관계 85%, 딸림자료관계 71%, 전후관계 31%, 대등관계 29%, 기술관계 22%로 나타나고 있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지적 관계를 갖는 레코드의 비율이 97%로 나타나 Tillett의 연구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Vellucci는 여기에 대해 연구대상 집단인 음악자료가 갖는 서지적 속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⁴⁾

Zhang는 Tillett의 관계유형을 기반으로 North Carolina 대학교 도서관의 중국출판물 약 10만 6천권 가운데 300권을 무작위 추출하여 이들의 서지관계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지적 관계를 갖는 레코드의 비율이 68.89%, 두 번 이상의 서지관계가 나타나는 비율은 34.4%였으며, 각 관계유형별로 전체-부분관계는 53.85%, 전후관계는 30.76%, 대등관계는 14.72%, 파생관계는 9.70%, 딸림자료관계는 5.35%, 기술관계는 5.35%로 나타났다.⁵⁾

Bennett 등은 OCLC의 WorldCat에서 1,000건의 서지레코드를 표본 추출하여 FRBR 모형에

2) Barbara B. Tillett, "Bibliographic Relationships: an Empirical Study of the LC Machine-Readable Record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36, No.2(April 1992), pp.162-188.

3) R.P. Smiraglia and G.H. Leazer, "Derivativ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the Work Relationship in a Global Bibliographic Databas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50, No.6(1999), p.494.

4) Sherry L. Vellucci, "Bibliographic Relationships," In: *The Principles and Future of AACR: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inciples and Future Development of AACR, Toronto, Ontario, Canada, October 23-25, 1997* (Chicago: ALA, 1998), p.114.

5) Ying Zhang, *Bibliographic Relationships among Chinese Publications: a Bibliographic Study of the Chinese Collections of the East Asia Resources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03), p.37.

의한 저작특성을 분석한 결과 레코드당 대략 78%가 1개의 구현형밖에 갖지 않는 단일저작, 복수의 구현형을 갖고 있지만 표현형이 1개밖에 없는 단순저작이 16%, 복수의 표현형을 갖는 복잡저작이 6%로 나타났다.⁶⁾

橋結은 게이오대학 도서관시스템인 KOSMOS II 에서 1,000건의 일본어 서지레코드를 표본 추출하여 FRBR 모형에 의한 저작유형을 분석한 결과 레코드당 대략 81.6%가 1개의 구현형밖에 갖지 않는 단일저작, 복수의 구현형을 갖고 있지만 표현형이 1개밖에 없는 단순저작이 4.9%, 복수의 표현형을 갖는 복잡저작이 13.5%로 나타났다.⁷⁾

한편 서지적 관계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 김태수는 기존의 목록에서 서지적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자동화목록에서 이러한 서지적 관계유형의 수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⁸⁾ 이양숙은 참조를 통해 상이한 접근점을 연결하고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시하는 연결장치로서 참조레코드의 형식을 개발하였다.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지적 관계 유형을 실제로 조사 분석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한국어 서지 레코드의 전반적인 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KORMARC 형식의 레코드 기술에 관련된 서지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I. 서지적 관계의 개념과 유형

1. 서지적 관계의 개념

서지적 관계란 2개 이상의 서지적 속성 간의 관계이다. 예를 들면 도서의 개정판은 초판과 서지적 관계가 있으며, 총서내의 낱권은 전체 총서의 한 부분으로서 총서와 서지적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서지적 관계의 개념은 3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서지구조 즉, 서지기술, 목록, 그리고 서지 그 자체의 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다.¹⁰⁾ 따라서 서지적 관계는 서지 그 자체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서지적 요소간에 관계는 이러한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목록의 구조를 결정한다.

이러한 서지적 관계는 근대도서관의 초창기 목록규칙에도 그 개념이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

6) Rick Bennett, Brian F. Lavoie, Edward T. O'Neill, "The Concept of a Work in WorldCat: an Application of FRBR."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Vol.27, No.1(2003), pp.45-59.

7) 橋結秋子, "日本語書誌レコードにおけるFRBRモデルの有用性: 著作パターンの分析." 日本図書館情報學會 三田圖書館情報學會 合同研究大會發表要綱, 2005, pp.153-156.

8) 김태수, "목록에서의 서지적 관계와 연결구조에 관한 연구." In: 文獻情報學論叢: 李載喆教授 定年紀念論文集 (서울: 九美貿易出版部, 1994), pp.159-182.

9) 이양숙, 서지적 관계유형에 기반한 참조시스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10) Ying Zhang. *op. cit.*, p.5.

다. 즉, Panizzi의 91개 규칙에 이미 참조지시를 다루고 있으며,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에서는 서지적으로 특정 판을 구별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국제목록원칙규범(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록의 기능 가운데 다양한 서지적 관계에 있는 자료들을 식별하여 쉽게 탐색(항해)할 수 있도록 목록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목록의 서지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목록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던 참조나 주기가 바로 서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서지적 관계는 자동화목록인 MARC 형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 서지적 관계와 관련하여 Tillett, Bertha, Leazer, Smiraglia, Vellucci 등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FRBR 모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절에서 이러한 서지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서지적 관계의 유형

가. MARC 형식의 서지적 관계유형

UNIMARC, MARC 21, KORMARC 형식에서는 해당 자료와 관련 자료와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¹¹⁾

- ① 수직적 관계(vertical relationship): 전체와 부분, 부분과 전체의 계층관계로서 총서에 속하는 특정자료와 이를 포함하고 있는 총서, 혹은 학술지의 논문과 이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학술지와의 관계를 말한다.
- ② 수평적 관계(horizontal relationship): 서로 다른 언어나 형식, 매체 등으로 표현된 특정 저작의 여러 상이한 판간의 관계를 말한다.
- ③ 연대적 관계(chronological relationship): 연속간행물의 선행지와 후속지와의 관계와 같이 시간순서에 따른 서지자료간의 관계를 말한다.

나. Tillett의 서지적 관계유형

Tillett은 Panizzi의 목록규칙에서부터 영미계 목록규칙들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제시하였다.¹²⁾

- ① 대등관계(equivalence relationship): 복본, 복제물, 영인본, 재쇄본, 사진복제, 마이크로형태의 복제 등

11) IFLA. *UNIMARC Universal MARC Format*(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80), p.58. Library of Congress. *MARC 21 Concise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2006 Concise edition*. <<http://www.loc.gov/marc/bibliographic/ecbdhome.html>> [cited 2007. 8. 5].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6), pp.885-886.

12) Barbara B. Tillett. *op. cit.*, pp.162-163.

- ② 파생관계(derivative relationship): 번역서, 개정판, 증보판, 축약판, 요약, 개작, 극화, 소설화 등
- ③ 기술관계(descriptive relationship): 서평, 평론서, 해설집, 사례집, 주석서 등
- ④ 전체-부분관계(whole-part relationship): 선집, 합집
- ⑤ 딸림자료관계(accompanying relationship): 부록, 지침서, 색인집, 용어집 등
- ⑥ 전후관계(sequential relationship): 후속자료, 선행자료, 속편
- ⑦ 특성공유관계(shared characteristic relationship): 해당 자료가 특정 자료와 저자, 서명 주제 등이 동일하거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발행국, 발행년 등이 동일한 자료간의 관계. 이는 서지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다. Bertha의 서지적 관계유형

Bertha는 자료의 표현매체와 본문, 언어, 시간, 서지계층과 같은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서지관계를 제안하였다.¹³⁾

- ① 대등관계: 표현매체를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저작간의 관계, 예를 들면 원작과 복본, 재쇄본, 영인본, 마이크로피쉬, 마이크로필름, CD-ROM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② 수평관계: 본문 혹은 언어와 관련하여 원작과 이의 상이한 버전과의 관계, 예를 들면 증보판, 간략판, 번역서, 편곡, 개작서, 평가, 평론, 비평, 주석서, 초록, 이차문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③ 연대관계: 선행저작과 후속저작 간의 관계, 예를 들면 연속간행물의 선행지와 후속지, 단행본의 속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④ 계층관계: 부분-전체와 전체-부분간의 관계, 예를 들면 도서와 개개의 단원, 학술지와 여기에 수록된 논문, 학술지와 특별호, 회의록과 여기에 수록된 하나의 글, 시선집과 여기에 수록된 특정 시, 주된 자료와 딸림자료, 원작과 부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⑤ 특성공유관계: 저자나 언어, 발행처, 발행년, 주제명표목, 분류기호, 문헌형태 등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자료들간의 관계로서 동일한 저자명탐색, 연도나 언어로 이용자 질의의 제한탐색, 표제와 주제명표목, 분류기호, 인용저자 등에 의한 주제탐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 Smiraglia의 서지적 관계유형

Smiraglia는 1992년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서지적 관계유형 가운데 저작들 간에 파생관계의 속성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7가지를 제안하였다.¹⁴⁾

13) Eva Bertha. "Inter- and Intrabibliographical Relationships: a Concept for a Hypercatalog." In: *Opportunity 2000: Understanding and Serving Users in an Electronic Librarianship*, edited by Ahmed H. Helal and Joachim W. Weiss(Germany, Essen: Essen Univ. Library, 1993), pp.215-216.

14) R.P. Smiraglia and G.H. Leazer. *op. cit.*, p.495.

- ① 동시적 파생물: 동시에 두 가지 판으로 발행된 저작의 출판물
- ② 연속적 파생물: 판을 달리하여 계속 발간되는 관계이며, 판표시 없이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번역물: 원작의 번역물
- ④ 증보: 원작에 삽화, 비평, 용어, 색인, 주적 등이 부가된 것을 포함
- ⑤ 축약: 요약이나 발췌 등을 포함
- ⑥ 개작: 영화각본, 가사대본, 편곡 등의 개작물을 포함
- ⑦ 공연: 소리와 영상기록물을 포함

마. FRBR 모형의 서지적 관계유형

저작유형과 관련하여 FRBR 모형의 서지적 관계 핵심은 제1집단 개체간의 상호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저작 상호간에, 표현형 상호간에, 구현형 상호간에 관계를 중심으로 서지적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대부분의 저작은 저작 상호간에 서지적 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저작이지만 저작 상호간에 후속, 부록, 보유, 요약, 개작, 변형, 각색, 모방 등의 서지적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유형은 성격상 참조저작과 독립저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참조저작은 관련된 다른 저작과 긴밀하게 연결된 저작으로 다른 저작과 관련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작이며, 독립저작은 이용이나 이해를 위해 관련된 다른 저작을 참조할 필요가 없는 저작이다.

표현형 상호간에 관계는 '동일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와 '상이한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로 나뉘어 진다. 동일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는 한 표현형이 다른 표현형에서 나왔을 때 발생하며, 한 표현형이 다른 표현형을 수정한 것을 의미한다. 동일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유형에는 축약, 개정, 번역, 편곡(음악) 등이 있다. 상이한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유형에는 저작과 저작수준에서와 유사한 서지적 관계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구현형 상호간에 서지적 관계는 보통 동일한 표현형으로부터 나온 구현형과 관련이 되며, 서지적 관계유형은 복제와 대체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각각의 상호간에는 위에서 언급한 서지적 관계 외에도 전체-부분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전체-부분관계를 구현형 범주에서만 다루기로 한다.

바.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서지적 관계유형

저작유형과 관련하여 각종 서지적 관계유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기사항에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지적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¹⁵⁾

15)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 第4版(서울: 韓國圖書館協會, 2003), pp.73-88.

- ① 번역, 개작, 번안
- ② 판표시와 서지적 내력: 개정, 전판, 속편, 후편, 개제, 영인본, 복제본, 짐자자료, 발췌, 별쇄본 등
- ③ 딸림자료
- ④ 총서
- ⑤ 상이한 형태의 자료: 마이크로피시, 마이크로필름, CD-ROM 등
- ⑥ 요약, 해제, 초록
- ⑦ 내용
- ⑧ 합철물
- ⑨ 부록: 별책부록, 기념호, 특별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지적 관계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구분방법이 다를 뿐 실제 서지적 관계들은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Tillett이 제시한 유형으로 이들 내용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내용도 분석해보면 FRBR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적인 서지적 유형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FRBR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지적 관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리뷰, 비평, 평가 등이 FRBR 모형의 저작개념에서는 별개의 저작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저작의 경계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Tillett이 제시한 7가지 서지적 유형 가운데 원본과 실제적인 서지적 관계가 미약한 특성공유관계를 제외하여 대등관계, 파생관계, 기술관계, 전제-부분관계, 딸림자료관계, 선후관계의 6가지를 바탕으로 하며, 이들 서지적 관계의 세부적인 저작유형을 다음 장에서 저작유형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Ⅲ. 서지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도서의 저작유형 분석

1. 저작의 유형구분 및 조사

한국어 도서의 저작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조사의 범위는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장서로 한정하였으며, OPAC을 통한 서지레코드와 함께 서가상의 자료를 직접 조사하여 관련요소들을 분석하였다.

2007년 1월 현재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장서는 총 1,175,313권이며, 한국어 도서는 769,986권이

다. 이 가운데 복본을 제외하면 한국어 도서는 422,900권이며, 이 중에서 DDC 주류마다 100건씩 모두 1,000건의 서지레코드를 표본으로 무작위 추출한 후 관계유형을 조사하였다. 단행본으로 한정하였으며, 비도서자료는 유형별 소장규모가 미미하여 조사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외하였다.

앞서 살펴본 관계유형들은 대부분의 서지적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며, 실제로 이들 내용은 대체로 KORMARC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서지레코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¹⁶⁾에서 연관저록필드를 중심으로 서지레코드에 기술된 내용과 실물자료를 대조하여 조사한 바,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서지요소들이 실제로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관저록필드가 아닌 일반 주기사항에 기술된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특히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서평, 평론, 해설, 주석, 파생관계에 해당하는 개작, 변형, 각색 등은 원작과의 관계가 거의 기재되지 않고 극히 일부 도서만이 일반주기사항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서지레코드만으로 저작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실물자료를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40만권에 달하는 모든 자료를 직접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등관계에 해당하는 대체와 복제, 파생관계에 해당하는 번역, 전체-부분관계에 해당하는 선집이나 합집, 딸림자료관계에 해당하는 부록, 전후관계에 해당하는 선행 및 후속자료 등은 KORMARC 형식에 기술할 수 있는 고유의 필드 번호가 할당되어 있다. 이외는 달리 파생관계에 해당하는 개작이나 각색,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서평이나 평론서, 해설서 등의 서지적 관계는 고유의 필드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서지내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간주하여 일반주기(500 필드)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서지적 관계는 항상 개별 저작 단독으로는 성립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저작이 서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관련 저작을 모두 조사하였다. 이때 각 서지적 관계의 빈도수는 별도의 레코드가 작성되어 있거나,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성될 수 있는 경우라면 조사과정에서 모두 포함하였다.

- 대등관계는 동일한 원작에 대한 대체 및 복제물 등의 빈도수를 조사한다. 즉, 특정 원작에 대한 복제물의 빈도수가 3회라면 원작은 모두 동일하므로 1회로 간주하여 합계 4회로 계산함.
- 파생관계는 동일한 원작에 대한 번역 및 개정, 개작, 증보, 축약, 편곡, 각색 등의 빈도수를 조사한다. 즉, 파생된 자료도 원작은 동일하므로 대등관계와 마찬가지로 파생된 자료의 빈도수와 원작 1회를 합산하여 계산함.

16) 2006년 11월 5일부터 10일간 100여권의 도서를 무작위 추출하여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OPAC를 통해 실물자료와 서지레코드를 조사하여 서지적 관계유형들의 기재사항을 분석하였다.

- 기술관계는 동일한 원작에 대한 서평이나 평론서, 해설집, 사례집 등의 빈도수를 조사한다. 즉, 대등관계와 마찬가지로 서평이나 평론서 등의 빈도수와 원작 1회를 합산하여 계산함.
- 전체-부분관계는 동일한 저작에 대한 선집이나 합집 등의 빈도수를 조사한다. 즉, 전체(예를 들면, 총서명이나 합집서명이 여기에 해당됨)를 원작 1회로 간주하고 해당 부분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 딸림자료관계는 모체자료에 대한 딸림자료 즉, 별책부록이나 특별호, 기념호 등의 빈도수에 동일 모체자료 1회를 합산하여 계산함.
- 전후관계는 선행자료와 후속자료를 모두 조사하면 중복되므로 선행자료에 대한 후속자료 즉, 후속지나 후편, 속편 등의 빈도수에 선행자료 1회를 합산하여 계산함.

〈표 1〉 저작의 유형과 KORMARC 형식의 대응

| 서지적 관계 | 저작유형 | KORMARC 형식의 대응 필드 |
|---------|--------------|--|
| 대등관계 | 대체, 재쇄, 영인 | 775(이판저록), 530(이용 가능한 다른 형태자료주기) |
| | 복제 | 776(기타형태저록), 533(복제주기), 534(원본주기) |
| 파생관계 | 번역 | 008(35-37: 언어구분), 246(제2지시기호 2: 원표제), 765(원저저록), 767(번역저록) |
| | 개정 | 250(판사항), 500(일반주기) |
| | 증보, 축약 | |
| | 개작, 모방, 변형 | 787(비특정적 관계저록), 500(일반주기) |
| | 편곡 | |
| | 각색, 극화 | |
| 소설화 | | |
| 기술관계 | 서평 | 786(데이터의 정보원기록), 500(일반주기) |
| | 평론서 | |
| | 해설집 | |
| | 사례집 | |
| 전체-부분관계 | 선집 | 760(상위총서저록), 762(하위총서저록), 773(기본자료저록), 774(구성단위저록), 440(총서사항/부출표목표제), 490(총서표제/부출되지 않거나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표제), 501(합철주기), 505(내용주기) |
| | 합집 | |
| 딸림자료관계 | 부록, 보유, 특별호 | 770(보유판 및 특별호 저록), 772(모체레코드저록), 777(동시발간자료), 525(부록주기) |
| | 지침서, 해설서 | |
| | 색인집 | |
| 전후관계 | 용어집 | |
| | 선행자료, 전편 | 247(변경전표제나 표제변동), 780(선행저록), 500(일반주기), 547(변경전 표제 설명주기) |
| | 후속자료, 후편, 속편 | 247(변경전표제나 표제변동), 785(후속저록), 500(일반주기), 547(변경전 표제 설명주기) |

2. 한국어 도서의 저작유형

저작유형과 관련하여 <표 1>에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KORMARC 레코드를 조사하였지만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서평, 평론서 등의 저작의 유형과 파생관계에 해당하는 개작이나 각색 등과 같은 저작유형은 일반주기(500 필드)를 제외하고는 이들 내용이 직접 기술되는 해당 필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787 필드(비특정적 관계저록)나 786 필드(데이터의 정보원기록)에 기술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기술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반주기에 일부 기술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특정 저작유형의 해당 필드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특정 저작유형에 대한 필드가 없으면 일반주기에 기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¹⁷⁾고 하겠다.

저작의 유형별 구체적인 현황은 <표 2>, <표 3>, <표 4>와 같다.

<표 2> 저작유형의 출현빈도 현황

| 저작유형의 출현빈도 | 장서수(권) | | 백분율(%) | |
|------------|--------|-----|--------|------|
| 0회 | 426 | | 42.6 | |
| 1회 | 342 | 574 | 34.2 | 57.4 |
| 2회 | 168 | | 16.8 | |
| 3회 | 64 | | 6.4 | |
| 4회 이상 | 0 | | .0 | |
| 합 계 | 1,000 | | 100.0 | |

<표 3> 저작의 유형별 장서현황

| 저작유형 | | 장서수(권) | | 백분율(%) | |
|---------|----------------|--------|-----|--------|------|
| 대등관계 | 대체 | 5 | 574 | 0.5 | 57.4 |
| | 복제 | 20 | | 2.0 | |
| 파생관계 | 번역 | 172 | | 17.2 | |
| | 개정, 증보, 축약 | 75 | | 7.5 | |
| | 개작, 편곡 | 2 | | 0.2 | |
| 기술관계 | 서평, 평론, 해설, 주석 | 27 | | 2.7 | |
| 전체-부분관계 | 선집, 합집 | 214 | | 21.4 | |
| 달립자료관계 | 부록 | 35 | | 3.5 | |
| 전후관계 | 후속, 속편 | 24 | | 2.4 | |
| 해당 없음 | | 426 | | | |
| 합 계 | | 1,000 | | 100.0 | |

17) 이는 KORMARC 레코드와 실물자료를 직접 대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

〈표 4〉 DDC 유별 저작유형의 현황

| 저작유형 | | DDC 주류 | | | | | | | | | | 합계 |
|---------|----------------|--------|-----|-----|------|-----|-----|------|-----|------|------|-----|
| | | 000 |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
| 대등관계 | 대체 | 0 | 3 | 0 | 0 | 0 | 0 | 0 | 0 | 2 | 0 | 5 |
| | 복제 | 5 | 2 | 0 | 4 | 0 | 0 | 1 | 2 | 4 | 2 | 20 |
| 파생관계 | 번역 | 15 | 14 | 12 | 24 | 13 | 13 | 23 | 13 | 22 | 23 | 172 |
| | 개정, 증보, 축약 | 4 | 5 | 7 | 18 | 11 | 4 | 14 | 2 | 6 | 4 | 75 |
| | 개작, 편곡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2 |
| 기술관계 | 서평, 평론, 해설, 주석 | 0 | 2 | 2 | 4 | 5 | 0 | 0 | 0 | 12 | 2 | 27 |
| 전체-부분관계 | 전집, 합집 | 26 | 15 | 5 | 31 | 14 | 16 | 28 | 15 | 38 | 26 | 214 |
| 딸림자료관계 | 부록 | 14 | 0 | 0 | 4 | 5 | 0 | 6 | 5 | 1 | 0 | 35 |
| 전후관계 | 후속, 속편 | 2 | 0 | 0 | 7 | 1 | 2 | 8 | 1 | 2 | 1 | 24 |
| 합 계(권) | | 66 | 41 | 26 | 92 | 49 | 35 | 80 | 38 | 89 | 58 | 574 |
| 백분율(%) | | 11.5 | 7.1 | 4.5 | 16.0 | 8.5 | 6.1 | 13.9 | 6.6 | 15.5 | 10.3 | 100 |

〈표 2〉는 레코드당 저작유형의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1회 이상 서지적 저작유형을 나타내는 레코드는 전체 레코드 가운데 57.4%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지적 관계가 없는 단순 저작이 42.6%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회 이상 저작유형이 중복되는 경우는 23.2%이며, 주로 번역, 개정, 전집 등의 유형에서 많이 나타났다.

〈표 3〉은 저작의 유형별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전체 조사대상 자료 가운데 저작유형이 하나라도 해당되는 레코드는 모두 574권으로 57.4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을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부분관계는 21.4%, 파생관계는 24.9%, 전후관계는 2.4%, 딸림자료관계 3.5%, 대등관계 2.5%, 기술관계 2.7%이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Tillett의 조사에 비해 파생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도서관이 학술적인 번역도서의 소장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표 4〉는 주제별 즉, DDC 유별 저작유형의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사회과학(300)과 문학류(800)가 각각 16.0%, 15.5%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주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200)와 순수과학(500)이 각각 4.5%와 6.1%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단행본으로 한정하여 비도서자료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비도서자료가 의미 있을 만큼 다양하게 대규모로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문학류의 파생관계에 해당하는 저작(개작, 각색, 소설화 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FRBR 모형과 관련하여 저작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FRBR 모형은 개체간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 모형이 적용되었을 경우 유용성을 가지려면 개체간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원작에 대해 각종 서지적 관계에 따른 다양한 저작유형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FRBR 모형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FRBR 모형의 저작개

님 가운데 표현형이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하는 저작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표현형이 2개 이상 존재한다는 것은 그 하위개념인 구현형도 당연히 2개 이상 존재하므로 복잡한 서지적 관계가 존재하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표현형의 수준에서 식별되는 것이 후속, 부록, 보유, 요약, 개작, 변형, 모방, 축약, 개정, 번역, 편곡 등의 저작이며, <표 4>에서 이에 해당되는 저작 유형은 전체 저작유형 574개 가운데 308개로 53.78%이다. 결국 FRBR 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 이들 자료가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저작의 특성과 목록기술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어 도서의 저작유형은 <표 2>~<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각 저작의 유형들이 KORMARC 레코드에서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는 있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저작의 유형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첫째, 해당 저작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아래의 예시와 같이 연관저록필드에 관련저작을 기술하는 방법이며, 여기에는 <표 1>에 제시된 대부분의 저작유형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시] 후속자료

245 10 ▼a韓國圖書館學關係文獻索引 : ▼b1945-1974 / ▼d朴俊植 編.
260 ▼a大邱 : ▼b慶北圖書館學會, ▼c1976.
785 00 ▼t한국문헌정보학색인 : 1975-1992 ▼w598196

[예시] 복제

245 10 ▼a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d이문열 지음.
260 ▼a서울 : ▼b등지, ▼c1995.
776 0 ▼t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h[전자자료] ▼w758191

둘째, 해당 저작과의 서지적 관계를 기술하고 있지만 아래 예시와 같이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기사항에 기술하는 방법이며, 여기에는 파생관계에 해당되는 요약, 개작, 변형, 모방, 기술관계에 해당되는 비평, 해제 등의 저작이 있다.

[예시] 각색

245 10 ▼a(희곡집) 분노의 세월 / ▼d피에르 앙드레 테르지앙 지음 : ▼e성귀수 옮김.

- 246 19 ▼aJours de colere en Coree
260 ▼a서울 : ▼b해냄, ▼c2004.
500 ▼a이 희곡집은 극작가 테르지앙이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의 프랑스어판 번역본을 읽고 각색한 것임.

[예시] 변안

- 245 10 ▼a神의 아그네스 : ▼b장편소설 / ▼d레오노어 플레셔 저 ; ▼e김경호 옮김.
246 19 ▼aAgnes of God
260 ▼a서울 : ▼b심지, ▼c1987.
500 ▼a본서의 원문은 John Pielmier의 희곡 를 레오노어 플레셔가 소설로 변안한 책임.

[예시] 주석

- 245 10 ▼a나, 황진이 : ▼b소설과 역사의 포옹 / ▼d김탁환 지음.
260 ▼a서울 : ▼b푸른역사, ▼c2006.
500 ▼a김탁환 역사 소설 "나, 황진이"의 본문과 함께 각주를 실은 주석판임.

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주기사항에 기술되는 저작들은 대체로 원작과 서지적 관계는 있지만 원작과 별개의 저작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표목도 원작의 저자가 아니라 관련저작의 저자가 되고 있다. FRBR 모형의 저작개념에서도 개작이나 변형, 비평 등은 새로운 저작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포괄적인 동일 저작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서지적으로 관련이 있는 저작이지만 KORMARC 레코드에서 이들 내용이 제대로 기술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의 KORMARC 레코드에서도 원작의 관점에서 관련 레코드가 기술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저작유형들이 모두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개정판의 경우 개정횟수가 많거나, 동일한 원작을 복수의 출판사에서 각각 번역하더라도 이들 저작들이 모두 상세하게 기술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들을 개체들의 관계성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레코드로 묶을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 FRBR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용자 지향형의 목록관점에서 서지적 관계유형을 살펴보면 기존의 목록레코드에 구조화 되어 있는 기술요소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용자들은 모든 관련저작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는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 검색해보면 관련자료들이 검색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서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이지만 이러한 저작들이 주기사항으로 기술되고 있어 여기

에 서지적으로 접근하려면 새로운 저작으로 검색하여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FRBR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개념을 살펴보면 이들 저작들을 모두 하나의 저작개념 안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저작의 범위가 훨씬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관계에 해당되는 요약, 개작, 변형, 모방 등도 같은 저작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관계에 해당되는 비평, 해제 등은 FRBR 모형의 저작개념에서도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저작의 범주를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평과 같이 원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서들이 포괄적인 저작개념에 포함되어 한꺼번에 브라우징 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저작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일반주기 필드보다는 KORMARC 형식에 새로운 연관저록필드를 신설하거나, 또는 일반주기 필드에서도 주기된 내용 가운데 표제나 책임표시 등을 클릭할 경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서지적 관계에 기반한 한국어 서지 레코드의 저작유형과 KORMARC 형식의 레코드 기술에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의 유형은 Tillett의 서지적 관계유형 가운데 특성공유관계를 제외한 6가지 즉, 대등관계(대체, 복제), 파생관계(번역, 개정·증보·축약), 기술관계(서평·평론·해설·주석), 전체-부분관계(전집·합집), 딸림자료관계(부록), 전후관계(후속·속편)를 근거로 구분하였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작유형의 전체 비율은 57.4%이며, 2회 이상 저작유형이 중복되는 비율은 23.2%이다. 또한 저작유형 가운데 전집 및 합집 21.4%, 번역서 17.2%, 개정서 7.5% 등으로 이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제별로는 사회과학 16.0%, 문학 15.5%, 기술과학 13.9%로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저작의 유형이 KORMARC 형식에서 주로 연관저록에 기술되고 있지만 개작이나 각색 등 파생관계의 저작들은 주기에 기술하고 있어 이들 저작에 대한 목록의 관계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기술관계에 해당하는 서평이나 평론 등은 연관저록은 물론 주기사항에도 거의 기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지적 관계가 있는 모든 저작유형들을 일목요연하게 검색하여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KORMARC 형식에 새로운 연관저록필드를 신설하거나, 일반 주기필드에서도 주기된 내용 가운데 표제 등을 클릭 할 경우 관련저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6.
- 김정현. 목록조직의 실제(개정판). 대구: 도서출판 태일사, 2006.
- 김정현. “FRBR에 의한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 (2004. 3), pp.215-235.
- 김정현. “AACR2R 2002 개정판의 개정내용과 특성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2003. 3), pp.252-270.
- 김태수. “목록에서의 서지적 관계와 연결구조에 관한 연구.” In: 文獻情報學論叢: 李載喆教授 定年 紀念論文集. 서울: 九美貿易出版部, 1994. pp.159-182.
- 노선희. 서지데이터 요소로서의 ‘저작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1.
- 박희영. 더블링크어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서지적 관계구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6.
- 이성숙. FRBR 모형의 수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4.
- 이성숙. “IFLA의 서지레코드 기능요건(FRBR) 모형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6), pp.319-342.
- 이양숙. 서지적 관계유형에 기반한 참조시스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 조재인. “FRBR 알고리즘 분석 및 KORMARC 데이터베이스 적용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9), pp.5-21.
- 조재인. “표현형 계층을 중심으로 한 FRBR 모형분석 및 목록 체계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2005. 6), pp.221-239.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 第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2003.
- 橋結秋子. “日本語書誌レコードにおけるFRBRモデルの有用性: 著作パターンの分析.” 日本圖書館情報學會 三田圖書館情報學會 合同研究大會發表要綱, 2005. pp.153-156.
- 菅野育子. “IFLA/FRBRとISWC, ISTRCのWork概念の比較.”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44(2000), pp.27-41.
- ALA.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2002 Revision*. Chicago: ALA, 2002.
- Bennett, Rick, Brian F. Lavoie, Edward T. O’neill. “The Concept of a Work in WorldCat: an Application of FRBR.” *Library Collection,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Vol.27, No.1 (2003), pp.45-59.

- Bertha, Eva. "Inter- and Intrabibliographical Relationships: a Concept for a Hypercatalog." In: *Opportunity 2000: Understanding and Serving Users in an Electronic Library* / edited by Ahmed H. Helal and Joachim W. Weiss. Germany, Essen: Essen Univ. Library, 1993. pp.212-223.
-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München: Saur, 1998.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김태수 역.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3)
- IFLA. *UNIMARC Universal MARC Format*.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80.
- Library of Congress. *MARC 21 Concise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2006 Concise Edition*. <<http://www.loc.gov/marc/bibliographic/ecbdhome.html>> [cited 2007. 8. 5].
- Smiraglia, R.P. and G.H. Leazer. "Derivativ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the Work Relationship in a Global Bibliographic Databas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50, No.6(1999), pp.493-504.
- Tillett, Barbara B. "Bibliographic Relationships: an Empirical Study of the LC Machine-Readable Record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36, No.2(April 1992), pp.162-188.
- Tillett, Barbara B. *Bibliographic Relationships: toward a Conceptual Structure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Used in Cataloging*. Ph. D.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7.
- Vellucci, Sherry L. "Bibliographic Relationships." In: *The Principles and Future of AACR: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inciples and Future Development of AACR, Toronto, Ontario, Canada, October 23-25, 1997*. Chicago: ALA, 1998. pp.105-147.
- Zhang, Ying. *Bibliographic Relationships among Chinese Publications: a Bibliographic Study of the Chinese Collections of the East Asia Resources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M.A. Thesi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03.